

대구주보

민족들의 복음화를 위한 미사
(전교 주일)

2013.10.20.(다해) 제1859호

새로운 복음화를 위해 매진합니다

편집 및 발행 | 천주교대구대교구 문화홍보실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3동 225-1 (053)250-3048~9 <http://www.daegu.jubo.or.kr>



만국성당 - 올리브산(耶루살렘)

† 오늘의 전례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라.” (마태 28,16-20 참조)

바오로 사도께서는 들어야 믿을 수 있고, 선포하는 이가 있어야 들을 수 있다고 가르치십니다. 선포는 아무나 마음이 내킨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명을 받은 사람이라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맡기신 약속과 명령을 오늘도 우리는 듣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제1독서 이사 2,1-5

제2독서 로마 10,9-18

복음 마태 28,16-20

입당송 하느님은 자비를 베푸시고 저희에게 복을 내리소서. 당신 얼굴을 저희에게 비추시고 자비를 베푸소서. 당신의 길을 세상이 알고, 당신의 구원을 만민이 알게 하소서.

화답송 ◎ 주님은 민족들의 눈앞에 당신 정의를 드러내셨네. 또는
◎ 우리 하느님의 구원을 온 세상 땅끝마다 모두 보았네.

영성체송 주님이 말씀하신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모든 민족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내가 세상 끝 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

여한준 롯데로 신부 | 범어본당 부주임



● 사목회의 시간

(본당 가을 운동회 준비를 위한 토의 중)

신부님 : 그럼, 그날 운동회에 참여할 신자들이 예상인원을 몇 명으로 생각하십니까?

사목위원 : 학생미사와 교중미사에 참석하는 신자들 정도로 생각하면 600여명 정도 되지 않을까요?

신부님 : 우리 본당 세대수 이천 세대입니다. 최소 2,000명을 목표로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요?

사목위원 : 에이~ 신부님, 아무리 그래도 이천 명이나 오겠습니까?

● 세례식 후 예비신자 교리반 봉사자 회식자리

봉사자 : 우리 본당은 길에 나가서 음료수나 화장지 나누어주며 선교활동도 안하는데 매번 50명도 넘게 세례를 받는 걸 보면 참 신기해요.

신부님 : 길거리에 나가서 초대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함께 기도하며 기쁘게 맞아들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봉사자 : 이제 주변에 대충 받을 만한 사람들은 세례 다 받은 것 같아서, ‘이번 환영식 때 사람들 오겠나?’ 하는데, 매번 숫자는 줄지 않고 50명이 넘게 오시는 걸보면 너무 신기해요.

가을운동회에 ‘600명 참석’이라는 소박한 목표! 이 목표 앞에 600명이 아니라 2,000명을 목표로 해야 한다는 말은 지나친 욕심일까요? ‘이제 세례 받을 만한 사람은 다 받은 것 같다’는 적당한 만족! 이 만족 앞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하신 예수님의 이 말씀은 과도한 욕심일까요? 갈릴래아에서 예수님을 뵈고, 마지막 말씀을 듣던 열한 제자들 중에도 “더러는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열한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고, 세례를 주고, 예수님의 명령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이것이 교회의 존재 이유입니다. 우리는 이를 ‘전교, 복음화’라고 합니다. 더러는 의심했지만, 제자들은 그 말씀을 믿고, 성령의 힘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첫발을 내딛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제자들과 예수님은 항상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복음을 듣는 우리 가운데 더러는 “에이~ 예수님, 아무리 그래도 모든 민족이 다 제자가 되겠습니까? 모든 민족들이 복음화 되겠습니까?”라고 의심할 것입니다. 더러는 ‘받을 만한 사람 다 받았다’고 적당히 만족하며 살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 예수님의 목표는 “모든 민족”입니다. 예수님의 목표와 나의 목표가 다르고, 예수님의 명령을 과도한 욕심이라 여기며, 나의 삶에 만족하고 안일하게 살고 있다면, ‘함께 하시겠다.’던 예수님의 약속도 내 안에서 이루어 질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목표를 나의 목표로 삼아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만들기로 결심’하는 사람과 예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실 것입니다. “보라, 내가 세상 끝 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는 예수님의 약속은 예수님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필요**



신앙의 해 교리 퀴즈 26



우리는 남에게, 특히 쉽게 영향을 받는 청소년들에게 나쁜 모범을 보이는 것으로 큰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이웃에게 좋지 못한 본을 보이는 것은 십계명 중 몇 번째 계명을 어기는 것일까요?





교황 프란치스코 성하의 2013년 전교주일 담화(요약)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올해 우리는 신앙의 해를 마무리하는 가운데 전교 주일을 지냅니다. 신앙의 해는 우리가 주님과 맺은 친교를 강화하고, 용기 있게 복음을 선포하는 교회로서 우리의 여정을 굳게 다지는 데에 중요한 계기가 됩니다. 이러한 전망에서, 저는 몇 가지 성찰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신앙은 하느님의 소중한 선물로, 우리가 하느님을 알고 사랑할 수 있게 우리 마음을 열어 줍니다. 신앙은 그분의 한없는 자비에 감사하며 그분의 사랑으로 살아갈 용기를 필요로 합니다. 또한 신앙은 나누어야 하는 선물입니다. 복음 선포는 그리스도 제자의 본분 가운데 하나이고 교회의 삶 전체에 활력을 주는 지속적인 투신입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증언하며 그분 복음의 선포자가 되어 우리 형제자매들과 함께 걸어가도록 세상에 파견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원의 길을 보여 주시기 위하여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를 세상 끝까지 전하는 사명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교회는 성령의 활동으로 활력을 얻는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놀라운 만남을 체험하였고 체험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깊은 기쁨의 경험, 곧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메시지를 다른 이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길에서

교회를 이끄시는 분은 바로 성령이십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일꾼이 되라고 격려하고자 합니다. 특별히 선교사들, 교구 소속 선교 사제들, 수도자들, 그리고 많은 평신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저는 또한 젊은 교회들이 어려움에 놓인 교회들에 선교사들을 파견하는 데에 기꺼이 동참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라.”(마태 28,19) 하신 예수님의 명령에 응답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모든 개별 교회, 모든 공동체를 풍요롭게 하는 것입니다. 이 부르심을 받고 있다고 느끼는 모든 이들에게 호소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처지에 따라 성령께 기꺼이 응답하십시오. 주저하지 말고 아낌없이 주님을 도와드리십시오.

이 신앙의 해로 주님이신 그리스도와 우리가 맺은 관계가 더욱 굳건해지기를 바랍니다. 이는 올해 전교주일에 제가 바라는 것이기도 합니다. 저는 선교사들, 그리고 세상 끝까지 복음을 선포해야 하는 교회의 이 근본 사명에 함께하고 도움을 주는 모든 이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복음의 봉사자이며 선교사로서 “즐거움과 위안을 주는 복음화의 기쁨”(『현대의 복음 선교』, 80항)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2013년 5월 19일 성령 강림 대축일에
교황 프란치스코



“악한 표양을 보이는 사람은 이웃을 악으로 이끄는 유혹자가 되는 것이다. 그는 덕과 정의에 해를 끼침으로써, 그의 형제를 영적 죽음으로 이끌어 들일 수 있다”(가톨릭교회교리서 2284항) 답 : 십계명의 ()번째 계명

이 코너를 오래 정답을 적으시고 이름, 세례명, 소속본당 기재 후 교구 문화홍보실에 보내주시면 됩니다.



산 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는 주님

문화홍보실

다른 모든 피조물과 마찬가지로, 시간도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것이며 유한합니다. 끝이 있다는 말입니다. 주 예수님께서서는 온 우주의 주님이시므로 시대와 역사의 주님이시기도 합니다. 이미 승리하신 주님의 뒤를 따라 아직 시간 속을 여행하고 있는 우리들이 “마지막 때”(1요한 2,18)에, 만물이 그분께 굴복할 때까지 새 하늘과 새 땅을 준비하며 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모든 이 안에서 모든 것이 되실 그 때가 빨리 오기를 기다리며, 성령과 교회는 “아멘, 오십시오, 주 예수님!”이라고 외칩니다.(묵시 22,20)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

예수님께서서는 충실한 제자들에게 상을 주러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때는 아무도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만 아신다.”(마태 24,36)고 잘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자기가 종말의 시간을 안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누구에게도 속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여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다.’ 하면서 많은 이를 속일 것이다.”(마태 24,4-5)

모든 나라와 민족이 주님 앞에 모여

예수님께서 처음 오셨을 때에는 심판하지 않으시고 오직 자비를 베푸셨지만, 주님의 이 자비를 받지 않겠노라고 거절하는 사

람은 스스로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는 모든 죽은 이들이 부활하여 살아있는 이들과 함께 주님 대전에 서게 되고 그들이 주님의 은총을 받아들였는지 거부하였는지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감추어져 있던 의로운 사람들의 선행도 모두 밝혀지고, 주님께서서는 “너희가 내 형제들인 이 가장 작은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 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 준 것이다.”(마태 25,40)라는 기준으로 개인과 공동체의 삶을 평가하실 것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

마지막 때에 하느님께서서는 천지를 새롭게 창조하십니다. 이 새로운 우주에는 슬픔과 눈물이 없을 것이고, 인류의 마지막 원수인 죽음이 영원히 패망할 것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에는 성전이 없습니다. 진짜 성전이신 주님께서 사람들 가운데 계시기 때문입니다. “보라, 이제 하느님의 거처는 사람들 가운데에 있다. 하느님께서 사람들과 함께 거처하시고 그들은 하느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느님 친히 그들의 하느님으로서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 주실 것이다. 다시는 죽음이 없고 다시는 슬픔도 울부짖음도 괴로움도 없을 것이다. 이전 것들이 사라져 버렸기 때문이다.”(묵시 21,3-4) **필문**

사랑은 되돌아옵니다

“이리 나와! 이 도둑놈아! 도대체 뭘 훔친 거야?” 약국 주인아주머니는 예닐곱 살로 보이는 까까머리 소년의 머리를 쥐어박으며 호되게 야단을 쳤습니다.

“어머니에게 약을 가져다 드릴려구요...” 고개를 푹 숙인 소년은 힘없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잠깐만요!” 바로 그 순간 근처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아저씨가 끼어들었습니다.

“얘야, 어머니가 아프시니?” 소년은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소년의 사정을 눈치챈 아저씨는 아무 말 없이 약값을 대신 치르고 소년과 비슷한 또래인 딸에게 야채스프를 가져 오라고 시켰습니다. 잠시 아저씨와 눈을 맞춘 소년은 ‘고맙다’는 인사도 없이 약과 스프가 담긴 비닐봉투를 받아 들고 집으로 뛰어갔습니다.

그리고 30년 이란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제 노인이 다 된 아저씨는 딸과 함께 예전의 그 자리에서 여전히 음식점을 운영하며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형편은 비록 넉넉하지 않았지만 음식을 구걸하는 거지들을 문전 박대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저씨는 가게에서 일을 하던 중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응급수술을 마치고 중환자실로 옮겨진 아

저씨와 그 곁을 지키는 딸에게 병원비가 청구되었습니다. 무려 2,700만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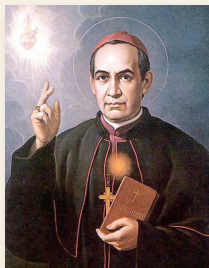
병원비 마련에 노심초사하던 딸은 결국 가게를 급매로 내놓고 다시 병원으로 돌아와 아버지 곁을 지키다 깜박 잠이 들었습니다. 잠시 후, 잠에서 깬 딸 앞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침상 위에 살포시 놓여있는 병원비 청구서에는 병원비가 ‘0’원으로 바뀌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청구서 뒤에는 조그만 메모지 한 장이 붙어 있었습니다.

“당신 아버지의 병원비는 이미 30년 전에 지불됐습니다. 세 통의 진통제와 야채스프와 함께...”

불현듯 딸의 머릿속에 30년 전 약을 훔치다 붙잡혀 구박을 받던 한 소년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 때 그 소년이 어엿한 의사로 성장해 바로 아버지의 주치의를 맡고 있었던 것입니다.

베푸는 사랑은 부메랑처럼 다시 되돌아옵니다. **필문**

금주의 성인



성 안토니오 마리아 클라넷(10월 24일)

자신의 신원을 선교사로 단정 지을 만큼 선교에 대한 뜨거운 열망으로 복음 전파에 헌신하신 안토니오 마리아 클라넷 성인께서는 사제로 서품 되신 후 클라넷 선교 수도회를 창설하시고 선교 사업에 투신하셨습니다. 성인께서는 대주교가 되신 후 학교를 세우고 신용협동조합을 만들어 가난한 이들을 위한 교육과 복지, 복음전파에 힘쓰셨다. 또한 설교와 간행물을 통한 선교의 중요성을 깨달아 출판사를 설립하여 가톨릭 서적들을 보급하였다. 제1차 바티칸 공의회 참석 후 스페인 혁명으로 귀국하지 못하고 프랑스에서 선종하신 성인께서는 비오 12세 교황님에 의해 시성되었다.



■ 샬트르 성바오로 수녀회 역사박물관 축복식



교구장 조환길(타대오) 대주교님께서는 10월 5일(토) 오후 2시 샬트르 성바오로 수녀회 역사박물관을 축복하시고, 전시된 수녀원 역사자료와 드망즈 주교님의 유품 등을 둘러보셨다.

사진제공 : 월간<빛>

■ 삼덕본당 설정 80주년 기념 견진성사



조환길(타대오) 대주교님께서는 10월 13일(일) 오전 11시 삼덕본당 설정 80주년 기념미사를 봉헌하시고, 128명의 신자들에게 견진성사를 거행하셨다.

사진제공 : 가톨릭신문

제 가슴속에는 당신의 가르침이 새겨져 있습니다.(시편 40,9)

하반기 말씀잔치 제5회 성경암송 발표대회

일시: 11월 23일(토) 오후 2시, 장소: 대구가톨릭대학교 대신학원 대강당(남산동)

대리구대회

1대리구	》	10월 26일(토)	TEL. (053)426-7200
2대리구	》	11월 9일(토)	TEL. (053)743-7010
3대리구	》	10월 13일(일)	TEL. (053)641-5678
4대리구	》	11월 16일(토)	TEL. (054)275-0610
5대리구	》	10월 27일(일)	TEL. (054)468-5400

문의: 대구대교구 사목국 성서사도직 담당 (053)250-3082
<http://cafe.daum.net/biap>



‘신앙의 해’ 기념 대구주보 교리퀴즈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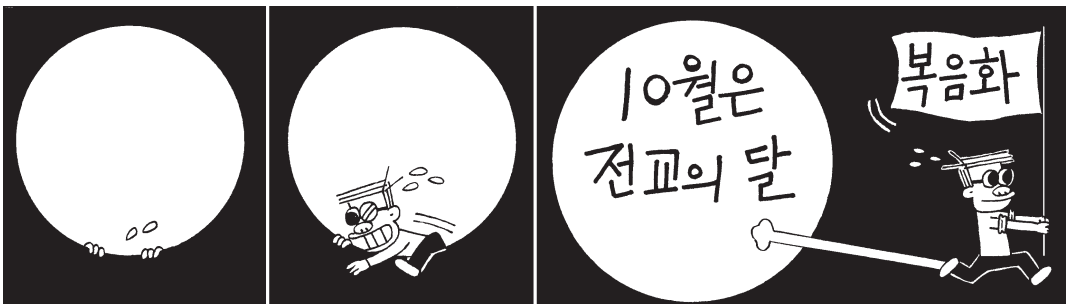
연중 제26주(9월 29일) ‘신앙의 해’ 교리퀴즈 정답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결합>입니다.

당첨자 : 최윤자(아네스, 이곡), 정원숙(사비나, 효목), 이보람(레지나, 평리),

김정희(안젤라, 성동), 김숙희(세실리아, 송현)

임묵에 충실히

박성규 엘리지오



교구민을 위한 2014년도 신앙 다이어리

전례와 말씀 안에서 매일을 주
님께! 2014년도 신앙 다이어리
와 함께 알차고 복된 한 해를
준비 하십시오.

선주문 예약: 9천 원
(정상 판매가: 1만 원)
예약기간: 9.30(월)~10.30(수)
주문: 교구 문화홍보실,
250-3048~9

행사 | 모임

여성공원 위령 미사

일시: 11.2(토) 9:30 출발
신청: 10.27(일)까지
참가비: 1만 5천 원(교통, 중식비 포함)
문의: 대봉성당, 423-1313

새성전 금금 마련 대바자회 (나눔과 행복)

기간: 10.25(금)~27(일), 다사성당
내용: 매일 미사 봉헌, 공연
먹거리, 살거리, 즐길거리
행운권 추첨, 경품 추첨

전례꽃꽃이연구회 월례회

일시: 10.21(월) 14:00
장소: 교구청 별관 대화합실
전례꽃꽃이 강좌반 수료 전시회
기간: 11.13(수)~15(금)
장소: 교구청 별관 대화합실

배고픈 아이들을 위한 제3회 밥 콘서트

일시: 10.27(일) 16:00, 입장료: 1만 원
장소: 아양아트센터(구. 동구 문화체육회관)
후원: 교구 청년국, 대구가톨릭사회복지회
문의: (010)5756-7676 / (010)9577-7819
본 공연의 수익금은 지역의 빈곤가정
아이들을 위해 쓰여집니다.

가톨릭 사진가회 가을 사진 전시회

기간: 11.1(금)~5(화)
장소: 성모당 성직자모지 앞 한옥마을

교육 | 모임

뿌에리 칸도레스 19기 단원 모집

대상: 초3~초6
문의: 교구 음악원, 255-4847

지성인을 위한 토요 신앙 특강

일시: 10.26(토) 10:00, 남산동 대신학원
주제: 그리스도인의 기도 / 5천 원
강사: 진(토마스) 신부
문의: 신학교육원, 660-5105~6

2014학년도 효성초등학교 신입생 모집

기간: 11.4(월)~8(금) 9:00~16:30
자격: 2007.1.1~12.31 사이에
출생한 아동
방법: 컴퓨터 추첨 / 문의: 720-5500
<http://www.dg-hyoseong.es.kr>

성요셉요양병원 특별한 영성치료

치매, 중풍, 말기암, 노인성질환
교우분을 정성으로 보살핍니다.

장효원(요셉) 신부님과 매일 미사를
봉헌하며 영성치료를 느껴보세요!
입원상담: 615-4871

대구가톨릭문화관 수강생 모집

플룙, 바이올린, 오카리나, 초크아트,
틀페인팅, 통기타, 우쿨렐레, POP, 대금
문의: 476-6211

채용 | 안내

대봉성당 사무원(여) 채용

자격: 고졸이상 PC가능한 자
서류: 교적사본, 이력서, 자기소개서,
최종학력증명서
마감: 10.27(일)
문의: 423-1313 / (011)519-2828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보험공단검진

대상: 2013년 대상자
문의: 650-4591
1차, 암 검진(암 검진은 꼭 예약)
건강검진은 암 조기발견에 좋습니다

군위묘원 정원식 봉안당

'성모의 정원' 분양 안내
일시: 10.20(일)부터 6개월간
특별분양(위치 자유선정)
장소: 묘원 사무실 가예약 후
교구청 관리과 접수 및 수납
문의: 교구청 묘원담당, 250-3003
군위묘원 관리사무소, (054)382-0168
상세한 내용은 각 본당에 배부된
팜플렛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공신장실
야간투석**

서부영남내과

영남의과대학교수 원장 김영진 (안드레아)
☎ 053)656-7533

2007 ISO 9001-2000 품질관리 인증업소, 그 명성과 자부심
엄선된 최상급 식재료와 올리브유, 식물성 기름만을 고집합니다.
몰려놓는 비즈니스 모임, 격조높은 최고의 상견례 명소

자금상

대표: 정경숙(스텔라), 황기철(요한)
예약 (053)767-6700 대구 수성구 동구동 10번지 101

월치과병원

☎ 053)741-1100

지하철 2호선 수성구청역 3번 출구 농협 5층
원장 신수용(루카), 조창식

ME 66차 부부의
달성피부과

의학박사 / 피부과전문의
손재경(다미아노) 김인주(레지나)

아토피센터·여드름·흉터·주름·탈모

7호광장 두류역 2,3번 출구
T.566-4333

그랜드 통증의학과
(비수술적인 통증 치료 전문)

허리, 어깨, 무릎 등 관절통
골프, 테니스 등 스포츠 통증

통증의학전문의 · 원장 정순우 (요셉)
범어네거리 그랜드호텔 건너편 범어롯데캐슬 상가 2층
☎ 755-5572 (지하철 범어역 6번 출구)

곽앤신원 이비인후과

진료과목 - 성형외과 · 소아청소년과

의학박사/원장 신재훈(루카), 박동석(아우구스티노)
코수술 전문병원 (축농증, 비염, 코골이, 코성형)
(1호선 성당역 3번 출구)
☎ (053)638-7582(치료빨리)
<http://www.ksnose.com>

KCB 포장이사서비스

꼼꼼히 딱 하루 한집만!!

대표전화 1577-2400
무료전화 080-053-1000

아곡수(아네스) 010-5048-7739

김영포버섯명가
www.pogokim.com

- 유기농버섯(표고 · 상황) 재배
- 체 험 학 습(견학 · 교육) 농장
- 버섯요리전문점 (Slowfood)

☎ 053)852-7576 남경화(헤레나)
영남대학교역에서 경산IC 방향 5Km 위치